

지역 소식통

김제시보건소, 생명나눔 주간 장기기증 문화 활성캠페인

김제시보건소는 제4회 생명나눔 주간을 맞아 오는 16일 김제 전통시장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기 등 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생명나눔 주간 캠페인'을 실시한다.

장기기증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기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행위로 장부상 사고 등 다양한 이유로 장기의 기능을 상실한 환자들의 유일한 치료 방법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장기기증자가 급격히 줄어들어 장기기증 대기자에 비해 실제 뇌사장기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약 40명의 환자들에게 장기이식을 가리고 있다.

김제시에서는 캠페인을 통한 주민홍보로 장기 기증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기기증 방법을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장기기증 방법은 모바일, 인터넷(www.kimsa.or.kr), 팩스, 우편, 등록기관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질병관리본부 장기기증관리센터(02-2628-9822)로 하면 된다.

하장구 보건위생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기증 희망자가 연일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장기기증이 유일한 치료 방법인 이식과 가족들이 희망이 되어주시길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내가 요리왕 콘테스트

김제시보건소는 영양플러스 보충식품을 활용한 '오늘은 내가 요리왕' 콘테스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늘은 내가 요리왕' 콘테스트는 비대면 영양관리 사업으로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가 보충식품을 활용한 건강식단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집밥 생활이 많아지는 요즘 내안의 건강 식단을 선보이며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6일부터 17일까지 김제시보건소 영양플러스 밴드에 음식 사진과 조리법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코로나 행정서비스 '긱'

코로나19 대응 '직접 찾아가는 다양한 서비스' 주민 호응↑... 임대폰·안전보호앱 설치·자가격리자 이송 지원 등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직접 찾아가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펼쳐 주민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완주군에 따르면 자가격리자의 안전보호앱 현장 설치 지원과 임대폰 지원,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이송 지원 등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완주군은 자가용이 없는 자가격리자의 해제 검사와 관련 2011조의 공무원이 군청 전용차량을 활용해 격리지역에 신속한 이송을 지원하고 있다. PCR 검사를 위한 이송지원에 나서고 있다.

우리말로 '중환자실 연체비용'이라 불리는 PCR 검사는 의심 환자의 침이나 가래 등 가검물에서 RNA를 채취해 진짜 환자의 RNA와 비교해 음성과 양성을 판정하는 검사방법이다.

자가격리자는 해제 전에 2차 PCR 검

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의 검사이송을 직접 지원해 줌으로써 신속하고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는 호평이다.

실제로 완주군의 자가격리자 3,884명 중에서 해제 전 검사 이송 지원을 받은 사람은 총 888명을 기록, 이송지원 비율이 무려 22.3%를 기록했다. 자가격리자 10명 중 2명 이상이 완주군의 이송지원을 받은 셈이다.

완주군은 또 자가격리자 중 고령 등으로 안전보호앱 설치가 어려운 경우 담당직원이 직접 자가격리 현장에 출장을 가서 앱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현장점검에 나선 3,620건 중에서 앱 설치 지원 건수는 모두 300건(8.3%)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완주군은 스마트폰을 소유하지 않은 시민들이나 앱 설치 불량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도 즉시 임대폰을 지원하는 등 무한 행정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완주군이 지금까지 임대폰을 지원

한 사례는 총 160여 건에 육박하고 있다.

임대폰 지원과 이송 지원을 받은 40대의 K씨는 "자가격리 중에 휴대전화와 앱 설치, 나이가 검사 이송 지원을 모두 받다보니 막연한 불안감이 사라지고 행정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심적 위안을 받을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완주군의 한 관계자는 "도농 복합도시 특성상 앱 설치가 힘든 어르신들이나 자가격리 해제를 위한 이동수단이 없는 분들이 적잖아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게 됐다"며 "일일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펼쳐다니는 직원들의 피로도가 두세 배 되지만 호응도가 너무 높아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완주군은 코로나19의 조기극복과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접종과 진단검사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청년 취업 위기 극복위한 '든든한 버팀목'

취업청년정책수당 참여자 추가모집...1인당 최대 5년간 1800만원 지원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올해 '취업청년정책수당' 참여자를 90명 선발함에 이어 13일부터 17일까지 36명의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취업청년정책수당은 김제시 핵심 청년정책으로 지난 2019년부터 216명을 참여자로 선발하여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지역정착에 기여해왔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18~39세 김제시 거주 청년이며, 월 급여가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로(1인가구 기준: 3,290,096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이다.

단,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선발 통보일로부터 1개월 내 전입 가능하여야 하며,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제외된다.

선발된 참여자에게는 1인당 최대 5년간 1,800만원까지 지원하며, 약정 후 2년까지는 분기별로 90만원씩 지급, 2년

후부터 4년까지는 반기별로 180만원씩 지급, 5년차 경과 후는 일시불로 360만원을 지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9월 17일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접수처인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청년창업팀으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jampo@korea.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고, 서류 심사서를 거쳐 참여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청년창업팀(☎663-540-3338)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2023년 국가예산 확보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김제시는 지난 10일 박준배 시장 주재로 '2023년 국가예산 확보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제시는 2023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7월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계획을 수립하고, 전 부서에서 정부 및 전북도 재정투자 방향과 정책동향 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요 정책사업을 비롯한 시민 요구와 현안 해결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해 왔다.

이날 보고회는 국단소장과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북거점형 산유 건강센터 건립 ▲친환경 중형급 수소공작기 개발(R&D)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신축 ▲만경지구 일반근린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스마트 하수관로 도시점수 대응체계 구축 ▲심포 갯벌 자연사박물관 건립 ▲농촌재생뉴딜사업 등 44개 사업(총사업비

2,515억원)의 추진 계획과 논리 개발, 향후 국가예산 확보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김제시는 앞으로 정부 중점사업인 한국판 뉴딜 2.0(디지털,그린,휴먼뉴딜), 일자리, 환경, 국가균형발전 등에 부합한 신성장동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업별 사전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절경의 대둔산 구름다리 재설치

완주군,기반시설 보강 등 새단장

웅장한 산세에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절경을 자랑하는 대둔산이 각종 편의시설을 새롭게 단장하고 국내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완주군은 대규모 예산투입과 함께 관광 기반시설 정비에 나섰고 시설상가들도 탐방객 파격적인 행사에 나서는 등 민·관이 힘을 합쳐 대둔산 관광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이처럼 완주군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새롭게 단장한 대둔산은 1천여 개의 양면이 6km에 걸쳐 이어지는 등천혜절경을 뽐내는 '호남의 금강산'으로 불린다.

'대둔(大遁)'이란 명칭은 '인적이 드문 벽산 두메산골의 험준하고 큰 산봉우리'를 뜻하는데, 이번엔 기반시설 새 단장과 함께 국내 최고의 관광명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완주군의 방침이다.

시설상가들도 대둔산 관광 활성화를 보탬에 완주군 구름다리의 재설치 기념으로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탐방객에게 각종 음식값을 10% 파격 할인하는 행사에 들어가게 된다. 또 케이블카 이용과 호텔 사우나도 할인에 나서는 등 완주 9경중 제1경인 대둔산 탐방을 유혹하고 있다.

완주군은 군비 7억7,700만원과 균형발전 특별회계 7억7,700만원 등 총 15억5,400만 원을 투입해 상공 80m에 위치한 30여 년 된 구름다리를 완전히 철거하고 올레 새롭게 재설치를 완료하는 등 관광 인프라 재정비에 나섰다.

철거한 안전점검 과정을 거쳐 길이 48m에 폭 1.2m로 재설치된 구름다리는 중앙으로 갈수록 흔들림이 많아지고 고도감도 절정에 이르는 등 탐방객들에게 최강의 짜릿함을 선사하고 있다.

시설상가들도 대둔산 관광 활성화를 보탬에 완주군 구름다리의 재설치 기념으로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탐방객에게 각종 음식값을 10% 파격 할인하는 행사에 들어가게 된다. 또 케이블카 이용과 호텔 사우나도 할인에 나서는 등 완주 9경중 제1경인 대둔산 탐방을 유혹하고 있다.

완주군 대둔산관리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탐방객들이 안전하면서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각종 시설도 재정비했다"며 "시설상가들도 방문객 환영행사를 계획하고 있어 대둔산에서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관광문제는 완주군 대둔산관리사무소(☎290-2743)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최고의 영예... '김제시민의 장' 수상자

2개 분야에서 산업장 임정귀·애향장 문종남 씨 선정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의 장 선발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9명의 심사위원이 위촉된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벌여 제2회 김제시 시민의 장 2개 분야에서 2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분야별 수상자는 산업장 임정귀(80, 농업인), 애향장 문종남(71, 재경 공덕면 향우회회장)씨이다.

산업장 수상자 임정귀씨는 김제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기술 혁신에 평생을 바쳐 노력한 결과 농한기 헛감자 비닐 하우스 재배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겨울철 백색 농업 혁명을 이루어냈고 지평선 농산물에 우수브랜드화를 추진하여 지평선 농산물이 전국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애향장 수상자 문종남씨는 재경 김제향우회 사무총장, 전북도의회 시·군 사무총장협의회장, 재경 공덕면 향우회회장을 맡아 재경 김제 향우들이 소통하고 결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김제 농산물 홍보 재경 향우와 고향 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고향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다.

김제시 시민의 장은 매년 김제지평선축제 개막식에서 수여하였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여식 등의 방안을 검토한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예방접종 완료자 좌석입니다"

완주군 음식점 동반좌석 안내 삼각대 배포... 방역수칙 오해 불식

"예방접종 완료자입니다"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 인원제한 예외 인센티브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관내 음식점에 '예방접종 완료자 동반좌석' 안내 삼각대를 배포했다.

지난 10일 완주군은 예방접종 완료자 동반좌석 표시 안내삼각대를 제작해 안심식당과 모범음식점 등 관내 음식점에 업소당 5~6개씩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완주군의 조치는 음식점의 코로나 예방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해 인원제한 예외 등 인센티브가 확대된 것에 따른 것으로 방역수칙 미준수에 대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영업주 또는 종사자는 예방접종 완료자(코로나 예방 백신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의 점종내역을 QR코드, 점종원료 문자메시지, 예방접종증명서 등으로 확인한 후 해당 테이블에 안내



삼각대를 세워두면 된다.

예방접종 완료자 동반좌석 안내삼각대는 균형 위생안전팀 및 읍면, 외식업완주군지부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현재 완주군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인까지 자석포모임이 가능하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음식점은 방문한 손님들이 예방접종 완료자 동반모임을 식별할 수 있어 방역수칙에 대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며 "자영업자들의 영업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